

Values of People with Primary and Secondary Psychopathic Tendency: Focused on Schwartz's Value Theory

Hwang Youn

Young-Ho Lee[†]

Department of Psychology,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This study attempted to determine difference between primary psychopath and secondary psychopath in terms of their values. After organizing three different groups with the help of the LSRP(Levenson Self-Report Psychopathy Scale): a primary psychopathic tendency group, a secondary psychopathic tendency group, and a normal control group, the authors compared and analyzed values of these three groups, which were measured using the PVQ-R(Portrait Values Questionnaire-Revised). Based on the results, the value priorities of the two psychopathic tendency groups were heavily inclined towards the values of personal focus. In particular, the two groups showed the tendency to highly value the higher order value of self-enhancement but less value the higher value of self-transcendence. In addition, self-enhancement and self-transcendence were the higher order values which clearly differentiated the primary psychopathic tendency group and secondary psychopathic tendency group. In particular, the values of achievement, power-dominance, power-resources, and universalism-concern most clearly differentiate the two groups from each other. In addition, among the higher values of openness to change and conservation, both primary and secondary psychopathic tendency groups surpassed the normal control group in terms of the values of hedonism and face. On the other hand, the normal control group surpassed the primary and secondary psychopathic tendency groups in terms of the values of humility and conformity-rules.

Keywords: primary psychopathy, secondary psychopathy, Schwartz's value theory, values, the Portrait Values Questionnaire- Revised

[†] Correspondence concerning this article should be addressed to Young-Ho Lee, Department of Psychology,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43 Jibong-ro, Wonmi-gu, Bucheon-si, Gyeonggi-do, Korea
Fax: 02-2164-4252, E-mail: yhlee@catholic.ac.kr

가치란 삶 속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가에 대한 질문으로 개인의 행동에 작용하는 강력한 동기체계로 알려져 있다(Choi & Lee, 2014; Roccas, Sagive, Schwartz, & Knafo, 2002). 선행연구자들은 가치를 통해 행동 및 다양한 성격 특성들을 설명해 왔으나, 정신병질 특성과 같은 인간행동의 어두운 면에 대해서는 다른 바가 거의 없다(Jonason, Strosser, Kroll, Duineveld, & Baruffi, 2015). 이는 가치의 속성 자체가 바람직성을 지향하고 있는 관계로 혐오적 성격특성인 정신병질과의 심리적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일 수 있다(Bilsky, 1998; McClelland, 1985). 그러나 훌륭한 음식도 지나친 편식은 독이 되는 것처럼, 가치 자체는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의 이유나 수단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신병질이 1차성과 2차성으로 구분되는 이질적인 장애임을 전제로 (Skeem, Poythress, Edens, Lilienfeld, & Cale, 2003) 정신병질자들의 가치체계에 대해 탐색해 보고자 한다. 두 정신병질자들의 가치관이 상호 어떻게 다르며 일반인들과도 어떻게 다른가를 살펴봄으로써 이질적인 장애로서의 정신병질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이에 따른 교육적·치료적 함의를 모색해 보고자 한다.

1차성 정신병질과 2차성 정신병질

정신병질은 극단적인 자기중심성과 이기심, 도덕성이 발달되어 있지 않은 성격특성으로 주로 거짓과 기만·무자비함·폭력 및 범죄행동을 통해 드러나게 된다(Park, Hyun, & You, 2010). Clerkly(1941)에 의해 정신병질이 처음 개념화된 이후 정신병질에 대한 다양한 유형학적 접근들이 이루어져 왔다(Hicks, Markon,

Patrick, Krueger, & Newman, 2004). Karpman (1948)은 정신병질이 단일한 장애가 아닌 두 개의 이질적인 장애라 주장한 바 있다. 즉, 두 장애가 행동표현형으로서는 구분하기 어려우나, 양심의 결여를 통해 동기화되는 정신병질 집단과 신경증적 갈등에 따른 정신병질 집단으로 구분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후대 학자들을 통해 각각 1차성 정신병질과 2차성 정신병질로 일컬어져 오다, 대표적인 정신병질 측정도구로 각광받고 있는 정신병질 체크리스트(Psychopathy Checklist-Revised, PCL-R; Hare, 1993)의 제작을 계기로 경험적 지지를 받게 되었다(예: Haapasalo & Pulkkinen, 1992; Hart & Hare, 1997; Hervé, Ling, & Hare, 2000). 1차성 정신병질은 무감각·냉담성과 같은 정동 경험의 결핍과 기만적인 대인관계 양식 등의 성격 특성이 강조되며, 2차성 정신병질은 충동성 및 만성적인 불안정감 등 사회적 일탈 경향성을 특징으로 한다(Hicks et al., 2004). 두 정신병질은 각기 다른 병인론에 기반하고 있는데, 1차성 정신병질은 도덕성 발달과 관련된 유전적 결함에서 비롯되며 2차성 정신병질은 가혹한 처벌 및 학대·방임 등 유소년기 외상경험에 따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Karpman, 1948; Lee & Salekin, 2010; Mealey, 1995; Poter, 1996). 이처럼 각기 다른 성격특성 및 행동특성, 병인론은 위반행동의 차이로 이어진다. 즉, 1차성 정신병질자들의 위반행동은 도구적인 목적이 두드러지는데, 개인적 이득을 목적으로 미리 계획된·약탈적인·목표지향적인 특성을 보인다. 반면, 2차성 정신병질자들의 위반행동은 반응적인 성격을 보이는데, 타인에 대한 분노·적개심·충동성·정서조절의 실패에 따른 행동화가 두드러진다(Falkenbach, Poythress, & Creevy, 2008; Skeem et al., 2003). 이에 따라

선행연구 문헌들은 1차성 정신병질자들에 대해 자신의 이익과 흥분을 최대화하고자 철저히 계산적이고 목적지향적이며 타인을 조종하는데 능숙한 사람들로 묘사하고 있다. 반면, 2차성 정신병질자들에 대해서는 신경증적 갈등을 자극하는 환경에 과민하게 반응하며 주로 반복적인 폭력문제로 법적 처벌을 받게 되는 사람들로 묘사하고 있다(Karpman, 1941; Kim & Park, 2005). 또한, 정신병질은 치료가 불가능하다고(Gacono, Nieberding, Owen, Rubel, & Bodholdt, 1997; Hare, 1993) 알려진 것과 달리, 1차성 정신병질과 2차성 정신병질은 치료 반응성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Karpman, 1948). 1차성 정신병질자들은 문제행동을 변화시키는데 동기가 없고 스스로에 대한 통찰이 부족하기 때문에 심리치료를 통해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된다(Hare, 1993; Wong, 2000). 이들의 공고화된 성격특성을 변화시키기보다는 자극적인 여가활동(예: 스카이다이빙, 행글라이딩) 등 건설적인 해소책을 제공하거나(Suedfeld & Landon, 1978; Wong & Hare, 2003), 이들의 속이기 행동을 탐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제반 여건들을 강화시키는 게 최선이라는 주장도 있다(Mealey, 1995). 반면, 2차성 정신병질자들은 1차성 정신병질자보다 전통적인 심리치료에 반응적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Hovarth & Symonds, 1991; Mealey, 1995; Potter, 1996). 이들의 위반행동에 불안·우울·정서적 불안정 등 정서적 문제가 기저에 깔려있으며, 이를 다뤄줌으로써 개선될 수 있다는 것이다(Skeem, Johansson, Andershed, Kerr, & Loudon, 2007). 이상과 같은 차이를 고려해 볼 때, 1차성 정신병질과 2차성 정신병질 간의 구분이 없는 정신병질은 임상적 개입을 위한 판단기준이 거의 없는 포괄

적인 범주에 불과하다 할 수 있겠다(Blackburn, 1988; Gunn, 1998). 따라서 두 정신병질의 구분이 갖는 의의는 이 장애에 대한 기술적인 설명을 넘어서는 것인 바, ‘정신병질은 치료가 불가능하다(Gacono et al. 1997; Hare, 1993)’는 비관적 전망에 맞서 이들의 치료 가능성 및 치료전략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한다는 데 있다(Blackburn, 1998; Cleckley, 1982; Karpman, 1946; Kernberg, 1998; Youn & Lee, 2016).

Schwartz의 가치이론

가치는 개인의 삶을 주도하는 원칙이자 이상적 목표로서 세상을 인식하고 자신과 타인의 행동을 평가하는 준거가 된다(Kluckhohn, 1951; Rokeach, 1973; Schwartz, 1992). Schwartz (1987, 1992)는 사회·문화를 초월하는 보편적 가치 체계가 존재한다고 보고 선행연구(Hofstede, 1980; Kluckhohn & Strodtbeck, 1961; Parsons & Shils, 1951; Rokeach, 1973) 및 70여 개국 이상의 대규모 표본집단 조사를 토대로 보편적 가치 내용과 구조에 관한 이론(theory of the universal content and structure of human values)을 확립한 바 있다. 이 이론에서는 개인의 가치가 생물학적 유기체로서의 욕구, 조화로운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한 욕구, 소속 집단의 존립과 안녕 욕구라는 3가지 동기적 목적에 기초한다고 보고(Schwartz, Cieciuch, Becchione, Davidov, Fischer, Beierlein, Ramos, Verkasalo, Lönnqvist, Demirutku, Dirien-Gumus, & Konty, 2012), 이에 기반한 19개의 보편적 가치를 Table 1과 같이 제안하고 있다(Cieciuch, Schwartz, & Vecchione, 2013). 19개의 가치들은 Figure 1과 같이 직교하는 양극차원에 기반한 원형구조 상에 배열될 수 있는데(Cieciuch et

Table 1
Conceptual Definition of the 19 Universal Values (Ciechisuch et al., 2013)

Value	Conceptual definition
Self-direction-thought	Freedom to cultivate one's own ideas and abilities
Self-direction-action	Freedom to determine one's own actions
Stimulation	Excitement, novelty, and change
Hedonism	Pleasure and sensuous gratification
Achievement	Success according to social standards
Power-dominance	Power through exercising control over people
Power-resources	Power through control of material and social resources
Face	Security and power through maintaining one's public image and avoiding
Security-personal	Safety in one's immediate environment
Security-societal	Safety and stability in the wider society
Tradition	Maintaining and preserving cultural, family, or religious traditions
Conformity-rules	Compliance with rules, laws, and formal obligations
Conformity-interpersonal	Avoidance of upsetting or harming other people
Humility	Recognizing one's insignificance in the larger scheme of things
Universalism-nature	Preservation of the natural environment
Universalism-concern	Commitment to equality, justice, and protection for all people
Universalism-tolerance	Acceptance and understanding of those who are different from oneself
Benevolence-caring	Devotion to the welfare of in-group members
Benevolence-dependability	Being a reliable and trustworthy member of the in-gro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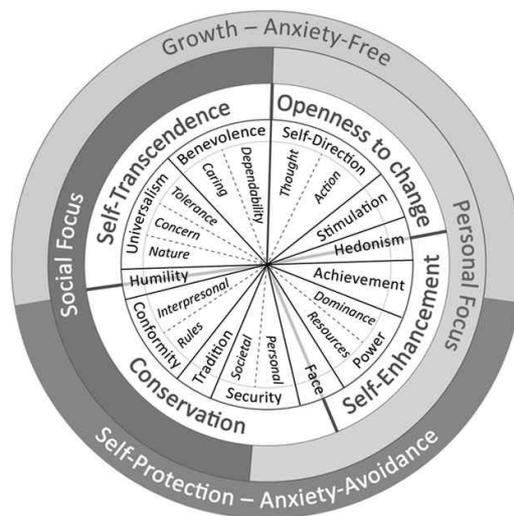


Figure 1. Circular continuum of 19 universal values (Cieciuch et al., 2013).

al., 2013), 각 차원의 반대편에 마주한 양극은 상호 갈등하는 동기를 반영한다. 자기초월 대 자기고양 차원은 자신과 타인에 대한 태도를 반영하는데, 자기초월은 타인에 대한 관심과 보살핌이 강조되며 자기고양은 타인에 대한 통제 및 우월을 통해 개인적 목표를 달성하는 것과 관련된다. 변화에 대한 개방성 대 보수 차원은 주어진 상황을 인식하는 태도를 반영한다. 변화에 대한 개방성은 새로운 생각과 경험, 행동의 추구를 강조하며, 보수는 개인 또는 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현상을 보존하는 것과 관련된다(Benish - Weisman, 2015). 따라서 각 차원의 양극을 반영하는 가치들은 4개의 상위가치를 구성하게 되며, 각 상위가치에 포함된 19개의 가치들은 상호 역동적인 관계에 놓이게 되는 바, 인접한 가치들끼리는 유사성과 조화의 관계를, 멀리 떨어진 가치들 간에는 갈등하는 관계를 갖게 된다(Schwartz, 1992; Schwartz et al., 2012). 또한 원형구조 상의 오른쪽에 위치하는 가치들(개인적 초점)은 개인이 자신의 관심과 개성을 어떻게 표현하는가와 관련되는 반면, 왼쪽에 위치한 가치들(사회적 초점)은 개인이 타인과 사회적으로 어떻게 관계하는가를 반영한다. 원형구조 상의 상부에 위치한 가치들(성장-불안자유)은 불안으로부터의 자유 및 성장 동기와 관련되며, 하부에 위치한 가치들(자기보호-불안회피)은 불안에 기초한 자기보호적인 동기를 반영한다(Cieciuch et al., 2013).

Schwartz 이론이 제안하고 있는 19개 보편적 가치들 및 원형구조의 타당성은 국내외 선행 연구를 통해 꾸준히 증명되어 왔는데(Choi & Lee, 2014; Kim & Choi, 2009; Schwartz, 1994; Schwartz & Bilsky, 1987, 1990; Schwartz et al., 2012), 이 이론이 갖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각

가치들 간의 역동적 관계 구조를 제시함으로써 측정 및 분석수준을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개인차로 전환시켰다는 점에 있다(Kim & Choi, 2009). 이를 통해, 이전까지 비교문화적 관점에 머물러 있던 연구자들의 관심도 소위 개인적 가치로까지 확대 되었으며, 가치의 개인차에 대한 관심은 성격·정서·교육·사회적 행동 등 다양한 연구주제를 통해 다뤄지고 있는 중이다(예: Bardi, Lee, Hofmann-Towfigh, & Soutar, 2009; Knafo, 2003; Sortheix, Olakivi, & Halkama, 2013).

정신병질 특성과 가치

현재까지 성격특성으로서의 정신병질과 가치의 관계를 다룬 국내외 선행연구는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최근 들어, 도덕성이 제대로 발휘되지 않는 혐오스러운 성격특질, 즉, 자기애·마키아벨리즘·정신병질로 구성되는 다크 트라이어드(dark triad of personality traits: Kowalski, 2001; Paulhaus & Williams, 2002)와 가치의 관계를 다룬 연구들이 일부 수행된 바 있다. Jonason 등(2015)은 다크 트라이어드가 공동체보다는 개인적 이익에 기능할 수 있는 가치체계와 관련된다고 보고 다크 트라이어드 3개 요인과 Schwartz 가치체계 간의 관련성을 조사하였다. 연구결과, 다크 트라이어드 중 정신병질 요인은 자기초월·보수 등 사회적 초점의 상위가치들과 부적상관을 보인 반면, 개인적 초점의 가치인 자기고양 상위가치와는 정적상관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Schwartz가 제안한 10개의 가치와 다크 트라이어드 간의 관계를 밝힌 Kajonius, Persson과 Jonason(2015)의 연구에서는 정신병질을 포함한 3개 요인이 모두 개인적 초점의 가치들인 자

극추구 · 쾌락주의 · 성취 · 권력과는 정적상관을 보인 반면, 사회적 초점의 가치들인 안전 · 전통 · 동조 · 박애 · 보편주의와는 부적상관을 보인 것으로 보고 되었다. 그러나 다크 트라이어드의 정신병질 요인은 정신병질이 임상적 유용성이 부족한 포괄적인 개념임에도 불구하고(Blackburn, 1988; Gunn, 1998), 동질집단임을 가정하고 있다는 한계를 갖는다. 실제로 다수의 선행연구들은 다크 트라이어드를 구성하는 3개 요인이 반사회적 성격특성을 공유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일치된 견해를 보이고 있으나(Gustafson & Ritzer, 1995; McHoskey, 1995; McHoskey, Worzel, & Szyarto, 1998; Paulhus & Williams, 2002), 다크 트라이어드의 정신병질 요인을 1차성 요인과 2차성 요인으로 구분하여 요인분석 했을 때, 정신병질의 2차성 요인이 다크 트라이어드의 나머지 요인들과 이질적인 요소임을 지적하고 있다(Jakobwitz & Egan, 2006; Kim, Hong, Choi, Kang, & Seo, 2010). 심지어 다크 트라이어드로부터 2차성 정신병질 특성을 분리해서 접근하는 시도로서 2차성 정신병질 · 내현적 자기애 · 경계선 성격특성으로 구성되는 취약한 다크 트라이어드(vulnerable dark triad of personality trait: Miller, Dir, Gentile, Wilson, Pryor, & Campbell, 2010)가 다크 트라이어드와는 다른 특성의 어둠으로 개념화 되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다크 트라이어드 연구를 통해 밝혀진 성격특성으로서의 정신병질과 가치관의 관계는 1차성 정신병질과 2차성 정신병질로 구분되어 보다 자세히 이해될 필요가 있겠다. 더욱이 상술한 선행연구들은 성격특성으로서의 정신병질과 가치의 관련성을 기술하는 데만 그치고 있어서 1차성 정신병질자들과 2차성 정신병질자들의 가치가 어떻게 다른가에 대한

설명이 부재할 뿐만 아니라, 정신병질자들과 일반인들의 가치가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도 제언해 주는 바가 없다.

연구문제

가치관은 행동을 예언하며(Bardi & Schwartz, 2013) 가치관의 변화를 통해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Bardi, Lee, & Goodwin, 2011), 1, 2차성 정신병질자들의 가치구조는 교육 및 치료 개입시 이들에 대한 차별적인 개입 지점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1, 2차성 정신병질자들이 반사회적 성격 특성을 공유하고 있으나, 반사회성에 기저한 동기가 다르다는 점에서 1차성 정신병질자 및 2차성 정신병질자, 일반인이 각기 다른 가치구조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 보았다. 즉, 정신병질자들이 보이는 사회적 일탈 및 위반행동을 고려했을 때, 1, 2차성 정신병질자들은 일반인들보다 개인적 초점의 가치를 더 중요시하고 사회적 초점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경시할 것이라 추론해 볼 수 있다. 또한, 1차성 정신병질자들이 보이는 도구적 목적의 위반행동을 고려했을 때, 1차성 정신병질자들은 2차성 정신병질자들보다 개인적 이익에 기능할 수 있는 가치를 보다 더 중요시 할 것이다. 반면, 2차성 정신병질자들에게서 관찰되는 신경증적 성향 및 반응적 성격의 위반행동을 고려했을 때, 2차성 정신병질자들은 1차성 정신병질자들보다 상대적으로 타인지향적인 가치구조를 가질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1차성 정신병성향 집단, 2차성 정신병질성향 집단, 통제집단을 구성한 후, Schwartz 가치이론의 4개 상위가치 및 전체 19개에 가치에 대

한 집단간 차이 및 우선순위의 차이를 비교하고자 하였다.

방 법

연구대상

수도권 소재 C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 633명이 설문에 참여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중 무성의하게 작성된 8부를 제외하고 총 625부의 설문지가 분석에 이용되었다. 전체 설문 응답자의 평균 연령은 21.4세(남=21.9, 여=21.1)였으며, 남자 대학생 268명과 여자 대학생 357명의 자료를 포함하고 있다.

측정도구

자기보고식 정신병질질문지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자들의 1차성 정신

병질 특성과 2차성 정신병질 특성을 측정하기 위해 Levenson, Kiehl과 Fitzpatrick(1995)이 제작한 자기보고식 정신병질 질문지(Levenson Self-Report Psychopathy Scale: LSRP)를 사용하였다. LSRP는 비재소자 집단의 정신병질 특성을 측정할 목적으로 개발되었는데, 다수의 선행연구들을 통해 신뢰도 및 타당도, 요인구조의 적절성이 입증된 바 있다(Ross, Moltó, Segarra, Pastor, & Montañés, 2007). 전체 26문항 중 1차성 정신병질 요인 16문항과 2차성 정신병질 요인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검자들은 '매우 그렇지 않다'부터 '매우 그렇다'까지 4점 리커트 척도 상에서 응답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Lee와 Gong(2007)이 번안하여 국내 타당화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전체 문항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alpha)는 .81, 1차성 정신병질 요인은 .77, 2차성 정신병질 요인은 .65로 나타났다.

Table 2
Internal Consistency Reliability of Each Value Type

Value	Cronbach's α	Value	Cronbach's α
Self-direction-thought	.57	Tradition	.70
Self-direction-action	.58	Conformity-rules	.84
Stimulation	.80	Conformity-interpersonal	.78
Hedonism	.73	Humility	.58
Achievement	.70	Universalism-nature	.88
Power-dominance	.72	Universalism-concern	.67
Power-resources	.78	Universalism-tolerance	.65
Face	.69	Benevolence-dependability	.72
Security-personal	.59	Benevolence-caring	.65
Security-societal	.70		

개정된 가치묘사질문지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자들의 가치구조를 측정하기 위해 Schwartz 등(2012)이 제작한 개정된 가치묘사 질문지(Portrait Value Questionnaire-Revised: PVQ-R)를 사용하였다. PVQ-R은 19개의 보편적 가치에 대해 각 3문항씩 총 57문항을 포함하고 있다. 수검자는 특정 가치를 반영하는 인물들에 대한 짧은 묘사를 읽고 그 인물이 자신과 얼마나 유사한가를 '나와 전혀 같지 않다'부터 '나와 매우 같다'까지 6점 리커트 척도로 평정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Choi와 Lee(2014)가 번안하여 국내 타당화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전체 문항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alpha)는 .93으로 나타났으며, 19개 각 가치들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alpha)는 Table 2와 같이 나타났다.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1차성 정신병질자들과 2차성 정신병질자들의 가치관을 비교하기 위하여 1차성 정신병질성향 집단, 2차성 정신병질성향 집단, 통제집단을 구성했는데, 각각의 집단 구성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이루어졌다.

연구대상자들을 1차성 정신병질성향 집단과 2차성 정신병질성향 집단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연구대상자들의 정신병질 특성이 표본의 상위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하고, 이들의 1차성 정신병질 특성과 2차성 정신병질 특성 간의 차이가 충분히 커야 한다. 또한 정신병질 특성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LSRP가 1차성 정신병질 요인 16문항, 2차성 정신병질 요인 10문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두 요인간 문항수의 차이에 따른 혼입을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1차성 정신병질 요인의 평균 점

수 및 2차성 정신병질 요인의 평균 점수를 각기 구한 후, 두 요인의 평균 점수를 합산한 결과가 상위 20%에 해당되는 연구대상자들의 '1차성 정신병질 요인 평균-2차성 정신병질 요인 평균' 값을 산출하였다. 이를 통해 양수 상위 30명을 1차성 정신병질성향 집단에, 음수 하위 30명을 2차성 정신병질성향 집단에 포함시켰으며, 각 집단에 포함된 연구대상자들은 두 요인 간 평균값의 차이가 최소 0.25점 이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통제집단은 자료분석에 포함된 625명의 연구대상자 중 1차성 정신병질 요인 평균 및 2차성 정신병질 요인 평균의 합계 점수가 상위 60% 이하인 수검자들 중에서 30명을 무작위로 선정하였다.

PVQ-R을 통해 측정된 각 가치 문항들의 단순 합산 점수엔 연구대상자들마다의 응답 성향에 따른 혼입 가능성이 잠재해 있다. 이를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Schwartz 등(2012)이 제시한 절차에 따라 전체 19개 가치마다의 교정점수를 산출한 후, 이를 상관분석 및 집단간 평균비교에 활용하였다. 교정점수는 19개 각 가치별로 평균 점수를 산출한 다음, PVQ-R이 포함하고 있는 전체 57문항에 대한 평균 점수(MRAT: Mean Score Across All Items)를 빼줌으로써 구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 산출된 19개 가치의 교정점수는 그 우세한 정도에 따라 양수부터 음수까지 분포하게 된다. 또한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각 30명씩으로 구성된 1차성 정신병질성향 집단, 2차성 정신병질성향 집단, 통제집단이 통계적으로 비교 가능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규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정규성 검증은 3집단의 4개 상위가치 및 전체 19개 가치에 대하여 Shapiro-Wilk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정규성 검증 결과, 3집단의 4개 상위가치 및 전체 19개 가치 자료는 대부분

정규분포하고 있었다. 그러나 1차성 정신병질성향 집단의 안전-개인 가치, $W(30)=.928$, $p<.05$, 2차성 정신병질성향 집단의 권력-지배 가치, $W(30)=.904$, $p<.05$, 일반집단의 성취 가치는, $W(30)=.910$, $p<.05$, 정규성에서 벗어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구 대상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수집된 자료들의 일반적인 경향성, 각 가치들에 대한 우선순위(가치우선성)를 확인하기 위하여 기술분석 및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1, 2차성 정신병질 특성과 각 가치들 간의 관련성을 검토하기 위해 상관분석이 이루어졌다. 또한 4개 상위가치 및 전체 19개 가치들에 대하여 1차성 정신병질성향 집단, 2차성 정신병질성향 집단, 통제집단 간의 평균비교를 위해 일원변량분석 및 중다비교를 실시하였다.

이상의 자료 분석을 위한 통계처리는 SPSS 20.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결 과

세 집단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정신병질 특성에 대한 기술통계

1차성 정신병질성향 집단 및 2차성 정신병질성향 집단, 일반집단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LSRP 요인별 평균점수는 Table 3에 제시하였다.

1, 2차성 정신병질 특성과 가치 간의 상관분석

1, 2차성 정신병질 특성과 가치 간의 관련성을 검토하기 위해 자료분석에 포함된 625명의 설문자료를 이용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Table 4에 제시하였다.

4개 상위가치부터 살펴보면, 1차성 정신병질 특성은 자기고양 상위가치와 유의한 정적상관을 보인 반면, $r=.58$, $p<.01$, 보수·자기초월 상위가치와는 유의한 부적상관을 보였다, $r=-.15$, $p<.01$; $r=-.52$, $p<.01$. 2차성 정신병질 특성은 자기고양 상위가치와 유의한 정적상관을 보인 반면, $r=.28$, $p<.01$, 자기초월 상위가치와는 유의한 부적상관을 보였다, $r=-.20$,

Table 3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LSRP Scores of Three Groups

	Primary (n=30)	Secondary (n=30)	Control (n=30)	F	
	Mean (SD)	Mean (SD)	Mean (SD)		
Age	20.73 (2.02)	20.90 (2.11)	20.83 (2.14)	0.05	
Gender	M 16	M 10	M 17		
	F 14	F 20	F 13		
LSRP	primary	2.85 (0.18)	2.43 (0.12)	2.01 (0.23)	163.90***
	secondary	2.37 (0.18)	2.81 (0.16)	2.03 (0.23)	123.95***

*** $p < .001$.

Table 4
Correlations between Primary-Secondary Psychopathic Tendency, and Value

	Value	Primary	Secondary
Higher order value	openness to change	.08	.01
	conservation	-.15**	-.06
	self-enhancement	.58**	.28**
	self-transcendence	-.52**	-.20**
19 value	self-direction-thought	-.03	-.04
	self-direction-action	-.08	-.22**
	stimulation	.12*	.11*
	hedonism	.16**	.15**
	achievement	.35**	.05
	power-dominance	.44**	.25**
	power-resources	.54**	.26**
	face	.24**	.13**
	security-personal	-.02	-.02
	security-societal	.01	-.05
	tradition	.06	.01
	conformity-rules	-.22**	-.12**
	conformity-interpersonal	-.17**	-.01
	humility	-.29**	-.10*
	universalism-nature	-.20**	-.06
	universalism-concern	-.41**	-.10
	universalism-tolerance	-.33**	-.23**
	benevolence-caring	-.31**	-.14**
	benevolence-dependability	-.10*	-.01

* $p < .05$. ** $p < .01$.

$p < .01$. 1차성 정신병질 특성에서 유의한 부적상관을 보인 보수 상위가치는 2차성 정신병질 특성과 유의한 관련성이 관찰되지 않았다, $r = -.06$, *ns.*

19개 각각의 가치에서, 1차성 정신병질 특

성은 개인적 초점의 가치들인 자극추구·쾌락주의·성취·권력-지배·권력-자원·체면과 유의한 정적상관을 보인 반면, $r = .12$, $p < .05$; $r = .16$, $p < .01$; $r = .35$, $p < .01$; $r = .44$, $p < .01$; $r = .54$, $p < .01$; $r = .24$, $p < .01$, 동조-규칙·동조-대인적·겸손·보편주의-자연·보편주의-관심·보편주의-관용·박애-돌봄·박애-신뢰성 등 사회적 초점의 가치들과는 유의한 부적상관을 보였다, $r = -.22$, $p < .01$; $r = -.17$, $p < .01$; $r = -.29$, $p < .01$; $r = -.20$, $p < .01$; $r = -.41$, $p < .01$; $r = -.33$, $p < .01$; $r = -.31$, $p < .01$; $r = -.10$, $p < .05$. 2차성 정신병질 특성은 자극추구·쾌락주의·권력-지배·권력-자원·체면 등 개인적 초점의 가치들과 유의한 정적상관을 보인 반면, $r = .11$, $p < .05$; $r = .15$, $p < .01$; $r = .25$, $p < .01$; $r = .26$, $p < .01$; $r = .13$, $p < .01$, 자기결정-행동·동조-규칙·겸손·보편주의-관용·박애-돌봄 가치와는 유의한 부적상관을 보였다, $r = -.22$, $p < .01$; $r = -.12$, $p < .01$; $r = -.10$, $p < .05$; $r = -.23$, $p < .01$; $r = -.14$, $p < .01$. 1차성 정신병질 특성에서 유의한 정적상관을 보인 성취 가치, 유의한 부적상관을 보인 동조-대인적·보편주의-자연·보편주의-관심·박애-신뢰성 가치는 2차성 정신병질 특성과 유의한 관련성이 관찰되지 않았다, $r = .05$, *ns.*; $r = -.01$, *ns.*; $r = -.06$, *ns.*; $r = -.10$, *ns.*; $r = -.01$, *ns.*. 또한 2차성 정신병질 특성에서 유의한 부적상관을 보인 자기결정-행동 가치는 1차성 정신병질 특성과 유의한 관련성이 관찰되지 않았다, $r = -.08$, *ns.*

4개 상위가치에 대한 1, 2차성 정신병질성향 집단 및 통제집단의 평균비교 및 순위비교

4개 상위가치에 대한 1차성 정신병질성향 집단, 2차성 정신병질성향 집단, 통제집단의

집단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Table 5와 같이 각 상위가치별로 일원변량분석(ANOVA)하고 *Scheffé* 방식으로 중다비교를 실시하였다. 또한 각각의 집단에서 우선시하는 가치를 알아보기 위해 각 집단별로 순위비교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Table 6에 제시하였다. 집단간 비교 분석시 교정점수를 활용하라는 Schwartz의 제안에 따라(Schwartz et al., 2012), Table 5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교정점수를 제시하였으며, 순위비교가 이루어진 Table 6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선행연구에서와 같이 원점수를 제시하였다(예: Choi & Lee, 2012; Schwartz et al., 2012).

세 집단의 평균비교를 살펴보면, 4개 상위 가치에서 모두 유의한 집단간 차이가 관찰되었다. 중다비교 결과, 변화에 대한 개방성 상위가치는 1차성 정신병질성향 집단이 통제집단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F(2, 87)=6.35, p<.01$, 보수 상위가치는 통제집단이 1차성 정신병질성향 집단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F(2, 87)=9.71, p<.001$. 자기고양 상위가치는 1차성 정신병질성향 집단, 2차성 정신병질성향 집단, 통제집단 순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F(2, 87)=33.12, p<.001$, 자기초월 상위가치는 통제집단, 2차성

Table 5
Mean Differences of 4 Higher Order Value Type between Primary-Secondary Psychopathic Tendency, and Normal Control

Higher order value	Primary(n=30) M(SD)	Secondary(n=30) M(SD)	Control(n=30) M(SD)	F (2, 87)	Post-hoc (Scheffé)
Openness to change	.48(0.54)	.36(0.51)	.05(0.34)	6.35**	1>3
Conservation	-.29(0.32)	-.15(0.29)	.02(0.19)	9.71***	1<3
Self-enhancement	.63(0.42)	.25(0.39)	-.23(0.41)	33.12***	1>2>3
Self-transcendence	-.38(0.39)	-.12(0.39)	.18(0.31)	20.48***	1<2<3

Note. 1 = primary; 2 = secondary; 3 = control.

** $p < .01$. *** $p < .001$.

Table 6
Priority Differences of 4 Higher Order Value Type between Primary-Secondary Psychopathic Tendency, and Normal Control

Rank	Primary(n=30)		Secondary(n=30)		Control(n=30)	
	higher order value	M(SD)	higher order value	M(SD)	higher order value	M(SD)
1	self-enhancement	4.80(0.67)	openness to change	4.22(0.74)	self-transcendence	4.20(0.73)
2	openness to change	4.64(0.71)	self-enhancement	4.11(0.71)	openness to change	4.08(0.67)
3	conservation	3.87(0.60)	self-transcendence	3.74(0.51)	conservation	4.05(0.61)
4	self-transcendence	3.78(0.56)	conservation	3.71(0.55)	self-enhancement	3.80(0.69)

정신병질성향 집단, 1차성 정신병질성향 집단 순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F(2, 87)=20.48, p<.001$. 따라서 1차성 정신병질성향 집단은 변화에 대한 개방성과 자기고양 상위가치가 세 집단 중 가장 우세하며, 통제집단은 보수 및 자기초월 상위가치가 세 집단 중 가장 우세함을 알 수 있다.

4개 상위가치에 대한 세 집단의 순위비교를 살펴보면, 1차성 정신병질성향 집단은 4개 상위가치 중 자기고양 상위가치가 가장 우세했으며, 변화에 대한 개방성·보수·자기초월 상위가치 순으로 가치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차성 정신병질성향 집단은 변화에 대한 개방성 상위가치가 가장 우세했으며, 자기고양·자기초월·보수 순으로 나타났다. 즉, 1차성 정신병질성향 집단과 2차성 정신병질성향 집단은 4개 상위가치 중 1·2위에 해당되는 상위가치가 그림 1의 원형구조 상에서 모두 개인적 초점에 포함되고, 3·4위에 해당되는 가치가 사회적 초점에 포함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개인적 초점에 포함되는 1·2위 상위가치가 두 집단 간에 상호 뒤바뀌어 있으며, 사회적 초점에 포함되는 3·4위 상위가치도 상호 뒤바뀌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통제집단은 자기초월 상위가치가 1위에 해당되고, 자기고양 가치가 4위에 해당되는 등 1차성 정신병질성향 집단과 대조되는 양상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19개 가치에 대한 1, 2차성 정신병질 성향 집단 및 통제집단의 평균비교 및 순위비교

전체 19개 가치에 대한 1차성 정신병질성향 집단·2차성 정신병질성향 집단·통제집단의

집단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able 7과 같이 각 가치별로 일원변량분석(ANOVA)하고 *Sheffé* 방식으로 중다비교를 실시하였다. 또한 각각의 집단에서 우선시하는 가치를 알아보기 위해 각 집단마다 순위비교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Table 8에 제시하였으며, 특정 가치에 대한 집단간 유의한 순위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t*-검증을 실시하였다. 집단간 비교분석 결과인 Table 7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교정 점수를 제시했으며, 순위비교 결과인 Table 8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원점수를 제시하였다.

세 집단의 평균비교를 살펴보면·자극추구·쾌락·성취·권력-지배·권력-자원·체면·동조-규칙·동조-대인적·겸손·보편주의-관심·보편주의-관용·박애-돌봄 가치에서 유의한 집단간 차이가 관찰되었다. 중다비교 결과, 개인적 초점의 가치일수록, 자기고양 가치에 포함되거나 인접한 가치일수록 1차성 정신병질성향 집단이 2차성 정신병질성향 집단이나 통제집단보다 유의하게 높은 가치 점수를 보였다. 즉, 자극추구 가치는 1차성 정신병질성향 집단이 통제집단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F(2, 87)=5.70, p<.01$, 성취·권력-지배 가치는 1차성 정신병질성향 집단이 2차성 정신병질성향 집단과 통제집단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F(2, 87)=12.60, p<.001$; $F(2, 87)=16.24, p<.001$. 권력-자원 가치는 1차성 정신병질 성향집단·2차성 정신병질성향 집단·통제집단 순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F(2, 87)=21.43, p<.001$, 쾌락주의와 체면 가치는 1차성 정신병질성향 집단과 2차성 정신병질성향 집단이 통제집단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F(2, 87)=10.01, p<.001$; $F(2, 87)=5.63, p<.01$. 반면, 사회적 초점의 가치일수록, 자기초월 가치에 포함되기

Table 7
Mean Differences of 19 Value Type between Primary-Secondary Psychopathic Tendency, and Normal Control

Value	Primary(<i>n</i> =30)	Secondary(<i>n</i> =30)	Control(<i>n</i> =30)	<i>F</i> (2, 87)	Post-hoc (Scheffé)
	<i>M</i> (<i>SD</i>)	<i>M</i> (<i>SD</i>)	<i>M</i> (<i>SD</i>)		
Self-direction-thought	0.17(0.61)	0.41(0.65)	0.08(0.56)	2.30	
Self-direction-action	-0.29(0.32)	-0.15(0.29)	0.02(0.19)	2.50	
Stimulation	0.11(0.90)	-0.20(1.10)	-0.70(0.81)	5.70**	1 > 3
Hedonism	0.91(0.70)	0.93(0.56)	0.24(0.77)	10.01***	1, 2 > 3
Achievement	0.86(0.66)	0.18(0.72)	-0.03(0.75)	12.69***	1 > 2, 3
Power-dominance	0.38(0.69)	-0.25(0.72)	-0.69(0.77)	16.24***	1 > 2, 3
Power-resources	0.45(0.62)	-0.23(0.85)	-0.80(0.74)	21.43***	1 > 2 > 3
Face	0.56(0.56)	0.64(0.70)	0.14(0.59)	5.63**	1, 2 > 3
Security-personal	0.17(0.63)	0.30(0.87)	0.16(0.53)	0.38	
Security-societal	0.07(0.78)	-0.18(0.90)	0.21(0.77)	1.79	
Tradition	-1.24(1.03)	-1.19(0.79)	-0.96(0.76)	0.90	
Conformity-rules	-0.71(0.86)	-0.37(0.70)	0.21(0.71)	11.45***	3 > 1, 2
Conformity-interpersonal	-0.12(0.92)	0.38(0.87)	0.47(0.57)	4.78**	2, 3 > 1
Humility	-0.77(0.92)	-0.61(0.75)	-0.10(0.64)	5.91**	3 > 1, 2
Universalism-nature	-0.75(1.03)	-0.55(0.87)	-0.37(0.70)	1.43	
Universalism-concern	-0.72(0.80)	0.07(0.75)	0.40(0.44)	21.19***	2, 3 > 1
Universalism-tolerance	-0.20(0.73)	-0.06(0.78)	0.31(0.62)	4.21*	3 > 1
Benevolence-caring	0.05(0.60)	0.05(0.65)	0.47(0.54)	5.03**	3 > 1, 2
Benevolence-dependability	0.09(0.52)	0.38(0.79)	0.34(0.49)	1.93	

Note. 1 = primary; 2 = secondary; 3 = control.

* $p < .05$. ** $p < .01$. *** $p < .001$.

나 인접한 가치일수록 통제집단이 1차성 정신병질성향 집단이나 2차성 정신병질성향 집단보다 유의하게 높은 가치 점수를 보였다. 즉, 동조·규칙·겸손·박애·돌봄 가치는 통제집단이 1차성 정신병질성향 집단 및 2차성 정신병질성향 집단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

났으며, $F(2, 87)=11.45, p<.001$; $F(2, 87)=5.91, p<.01$; $F(2, 87)=5.03, p<.01$, 보편주의-관용 가치는 통제집단이 1차성 정신병질 집단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F(2, 87)=4.21, p<.05$. 또한 동조-대인적·보편주의-관심 가치에서는 통제집단과 2차성 정신병질성향 집단

Table 8
Priority Differences of 19 Value Type between Primary-Secondary Psychopathic Tendency, and Normal Control

Rank	Primary(<i>n</i> =30)		Secondary(<i>n</i> =30)		Control(<i>n</i> =30)	
	value	<i>M</i> (<i>SD</i>)	value	<i>M</i> (<i>SD</i>)	value	<i>M</i> (<i>SD</i>)
1	hedonism	5.08 (0.87)	hedonism	4.79 (0.67)	self-direction -action	4.62 (0.82)
2	achievement	5.02 (0.75)	face	4.50 (0.88)	conformity -interpersonal	4.50 (0.86)
3	self-direction -action	4.88 (0.91)	self-direction -thought	4.27 (0.89)	benevolence -caring	4.50 (0.92)
4	face	4.72 (0.87)	benevolence -dependability	4.23 (0.84)	universalism -concern	4.42 (0.86)
5	power -resources	4.61 (0.81)	conformity -interpersonal	4.23 (1.03)	benevolence -dependability	4.36 (0.88)
6	power -dominance	4.54 (0.86)	self-direction -action	4.16 (0.95)	benevolence -tolerance	4.34 (0.83)
7	self-direction -thought	4.33 (0.73)	security -personal	4.16 (0.97)	hedonism	4.27 (1.06)
8	security -personal	4.33 (0.84)	achievement	4.03 (0.96)	conformity -rules	4.24 (0.80)
9	stimulation	4.28 (0.99)	universalism -concern	3.92 (0.72)	security -societal	4.24 (1.03)
10	benevolence -dependability	4.26 (0.74)	benevolence -caring	3.91 (0.84)	security -personal	4.19 (0.79)
11	security -societal	4.23 (0.93)	universalism -tolerance	3.80 (0.82)	face	4.17 (0.87)
12	benevolence -caring	4.21 (0.69)	security -societal	3.68 (0.91)	self-direction -thought	4.11 (0.72)
13	conformity -interpersonal	4.04 (1.12)	stimulation	3.66 (1.27)	achievement	4.00 (0.80)
14	universalism -tolerance	3.97 (0.81)	power -resources	3.62 (1.13)	humility	3.92 (0.89)
15	conformity -rules	3.46 (1.07)	power -dominance	3.61 (0.95)	universalism -nature	3.66 (0.90)
16	universalism -concern	3.44 (0.87)	conformity -rules	3.49 (0.84)	power -dominance	3.33 (0.97)
17	universalism -nature	3.41 (1.18)	universalism -nature	3.31 (1.09)	stimulation	3.32 (1.00)
18	humility	3.40 (0.92)	humility	3.24 (0.87)	power -resources	3.22 (0.84)
19	tradition	2.92 (1.03)	tradition	2.67 (0.97)	tradition	3.07 (0.86)

이 1차성 정신병질성향 집단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R(2, 87)=4.78, p<.01$; $R(2, 87)=21.19, p<.001$. 이밖에 상위가치 중 변화에 대한 개방성에 해당되는 자기결정-사고·자기결정-행위 가치, $R(2, 87)=2.30, ns$; $R(2, 87)=2.50, ns$, 보수에 해당되는 안전-개인적·안전-사회적·전통 가치, $R(2, 87)=0.38, ns$; $R(2, 87)=1.79, ns$; $R(2, 87)=0.90, ns$, 자기초월에 해당되는 보편주의-자연·박애-신뢰성 가치에서는 세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R(2, 87)=1.43, ns$; $R(2, 87)=1.93, ns$.

세 집단의 가치우선성의 차이를 상위범주 30%(1위~6위), 중간범주 40%(7위~13위), 하위범주 30%(14위~19위)로 나누어 살펴보면, 1차성 정신병질성향 집단은 쾌락주의·성취·권력-지배·권력-자원·체면 등 상위가치 중 자기고양에 포함되는 모든 가치들이 상위범주에 집중되어 있다. 10위부터 19위까지의 중하위 범주엔 박애-신뢰성·안전-사회적·박애-돌봄·동조-대인적·보편주의-관용·동조-규칙·보편주의-관심·보편주의-자연·겸손·전통 등 상위가치 중 보수와 자기초월에 해당되는 가치들이 집중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2차성 정신병질성향 집단 및 통제집단과의 순위비교를 통해 1차성 정신병질성향 집단은 상위가치 중 자기고양과 변화에 대한 개방성에 포함되는 가치들에서 상대적으로 우세한 가치우선성을 부여하고 있었다. 즉, 1차성 정신병질성향 집단은 자기결정-행위·성취·권력-지배·권력-자원 가치에서 2차성 정신병질성향 집단보다 유의하게 우세한 가치우선성을 부여하고 있었으며, $t(58)=2.79, p<.01$; $t(58)=4.34, p<.001$; $t(58)=3.28, p<.01$; $t(58)=3.05, p<.01$, 자극추구·성취·권력-지배·권력-자원·체면 가치에서 통제집단보다 유의하게 우세

한 가치우선성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58)=2.39, p<.05$; $t(58)=4.67, p<.001$; $t(58)=5.05, p<.001$; $t(58)=6.00, p<.001$; $t(58)=2.41, p<.05$. 한편, 2차성 정신병질성향 집단은 상위범주·중간범주·하위범주에 4개 상위가치에 포함되는 가치들이 비교적 고르게 분포하고 있었는데, 자기결정-사고·보편주의-관심 가치에서 1차성 정신병질성향 집단보다 유의하게 우세한 가치우선성을 부여하고 있었으며, $t(58)=2.00, p<.05$; $t(58)=3.73, p<.001$, 쾌락주의·권력-지배·권력-자원·안전-사회적 가치에서는 통제집단보다 유의하게 우세한 가치우선성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58)=2.98, p<.01$; $t(58)=2.16, p<.05$; $t(58)=2.56, p<.05$; $t(58)=2.84, p<.01$. 통제집단은 박애-돌봄·보편주의-관심·박애-신뢰성·보편주의-관용 등 상위가치 중 자기초월에 포함되는 가치들이 상위범주에 집중되어 있으며, 중간범주엔, 동조-규칙·안전-사회적·안전-개인적·체면 등 보수에 포함되는 가치들이 집중되어 있었다. 또한 나머지 두 집단과의 순위비교를 통해서 통제집단은 동조-규칙·동조-대인적·겸손·보편주의-관심·보편주의-관용·박애-돌봄·박애-신뢰성 가치에서 1차성 정신병질성향 집단보다 유의하게 우세한 가치우선성을 부여하고 있었으며, $t(58)=4.21, p<.001$; $t(58)=3.28, p<.01$; $t(58)=2.88, p<.01$; $t(58)=7.52, p<.001$; $t(58)=3.56, p<.001$; $t(58)=4.14, p<.001$; $t(58)=2.58, p<.05$, 자기결정-행위·동조-규칙·겸손·보편주의-관심·보편주의-관용·박애-돌봄 가치에서 2차성 정신병질성향 집단보다 유의하게 우세한 가치우선성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58)=2.54, p<.05$; $t(58)=4.14, p<.001$; $t(58)=2.64, p<.01$; $t(58)=3.26, p<.01$; $t(58)=2.71, p<.01$; $t(58)=3.95, p<.001$.

논 의

본 연구는 정신병질이 1차성과 2차성으로 구분되는 이질적인 장애임을 전제로 이들의 행동에 작용하는 가치관이 서로 어떻게 다르며, 통제집단과도 어떻게 다른가를 탐색할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이를 위해 표본집단을 대상으로 LSRP와 PVQ-R을 실시하고, 1차성 정신병질성향 집단·2차성 정신병질성향 집단·통제집단을 구성한 후, 평균비교 및 순위비교를 통해 세 집단의 가치관을 비교하였다. 이를 통해 드러난 결과를 전체 정신병질성향 집단과 통제집단 간의 차이, 1차성 정신병질성향 집단과 2차성 정신병질성향 집단 간의 차이, 선행연구 결과와의 차이를 중심으로 논의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4개 상위가치에 대한 평균비교 및 순위비교 결과, 통제집단은 개인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가 상대적으로 균형을 이루고 있었으나, 두 정신병질성향 집단은 개인적 초점의 가치에 편향된 가치우선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기고양과 자기초월 상위가치에서 두 정신병질성향 집단은 통제집단과 달리 자기초월보다 자기고양 상위가치에 가치우선성을 두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정신병질자들이 일반인들보다 개인중심적인 가치에 편향되어 있으며, 타인 및 사회공동체의 이익보다는 개인의 이익추구에 기능할 수 있는 가치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추론해 볼 수 있겠다.

둘째, 두 정신병질성향 집단에 대한 평균비교 및 순위비교 결과, 1차성 정신병질성향 집단은 자기고양 상위가치 및 성취·권력-지배·권력-자원가치에 상대적으로 높은 가치우선성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차

성 정신병질성향 집단은 자기초월 상위가치 및 보편주의-관심가치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가치우선성을 부여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두 정신병질이 반사회성을 공유하지만, 개인적 가치추구 및 사회적 관심과 보편주의적 속성에 있어서 양적인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즉, 1차성 정신병질자들이 2차성 정신병질자들보다 개인적 이익추구에 기능하는 가치를 더 선호하며, 사회적 공정성 및 약자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위한 가치엔 더 무관심한 경향이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1차성 정신병질과 2차성 정신병질 간의 구분은 치료가능성 및 중재전략의 차별성으로 인해 선행연구자들이 줄곧 관심을 가져온 연구주제이다(Skeem et al., 2003). 선행연구자들은 두 정신병질을 구분할 수 있는 요소로서 병인론·경계선 성격특성 수준·내/외현적 자기에·신경증 수준·정서적 결핍과 충동성 수준 등을 제시하고 있다(Blackburn, 1996; Cooke & Michie, 2001; Kosson & Newman, 1995; McHoskey, Worzel, & Szyarto, 1998). 이에 더해 본 연구결과는 가치관을 통해서도 1차성 정신병질과 2차성 정신병질이 구분될 수 있음을 제안한다. 즉, 자기고양 및 자기초월 상위를 비롯하여 성취·권력-지배·권력-자원·보편주의-관심 가치에서 두 정신병질 성향집단 간에 의미있는 차이가 관찰되고 있다. 이에 어떤 가치들을 통해 두 정신병질을 보다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자 단계적 판별분석을 추가로 실시해 보았다. 분석 결과, 4개 상위가치 중에서는 자기고양 상위가치가 두 정신병질성향 집단을 가장 잘 변별하였으며, 전체 19개 가치 중에서는 성취, 자기결정-사고, 자기결정-행위, 안전-사회적, 보편주의-관심 순으로 두 정신병질성향 집단을 변별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본 연구결과는 1차성 정신병질자들의 과감하고 주도적인 행동 경향성 및 2차성 정신병질자들의 공상·우유부단함 등의 신경증적 성향과 관련하여(Skeem et al., 2003) 가치관을 통한 설명을 제공하고 있다. 평균비교를 통하여, 2차성 정신병질성향 집단은 통제집단과 함께 보편주의·관심·동조·대인적 가치를 1차성 정신병질성향 집단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박애·돌봄 가치에 대하여 2차성 정신병질성향 집단은 1차성 정신병질성향 집단과 함께 통제집단보다 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적 공정성 및 약자에 대한 배려, 타인으로부터 수용 받는 것과 관련하여 2차성 정신병질자들이 1차성 정신병질자들보다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나, 가까운 이웃과 동료들을 돌보고 헌신하는 것에 관심이 부족한 것은 1차성 정신병질자들과 다를 바 없음을 시사한다. 또한 순위비교를 통해서, 1차성 정신병질성향 집단은 2차성 정신병질성향 집단보다 자기결정·행위 가치에 더 높은 가치우선성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차성 정신병질성향 집단은 1차성 정신병질성향 집단보다 자기결정·사고 가치에 더 높은 가치우선성을 부여하고 있었다. 이는 1차성 정신병질자들이 자신들의 행동을 독립적·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에 대해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반면, 2차성 정신병질자들은 사고의 자유로운 탐닉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밖에 상기한 특성은 PVQ-R에 응답하는 방식을 통해서도 드러나고 있다. 즉, 1차성 정신병질성향 집단은 세 집단 중 긍정편향이 가장 현저했으며, 2차성 정신병질성향 집단은 부정편향이 가장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Choi와 Lee(2014)의 연구에서는 해외 10개국(핀

란드·독일·이스라엘·이태리·뉴질랜드·폴란드·포르투갈·스위스·터기·미국)대학생들(Schwartz et al., 2012)과 국내 대학생들의 전체 19개 가치에 대한 순위 및 평균치를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개인주의 문화권에 속한 해외 10개국 대학생들이 국내 대학생들보다 전체적으로 높은 평균치를 보이고 있는데, 본 연구의 통제집단의 결과는 국내 대학생들의 결과와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1차성 정신병질성향 집단의 각 순위별 평균치는 해외 10개국 대학생들의 결과와 유사한 반면, 2차성 정신병질성향 집단의 각 순위별 평균치는 국내 대학생들의 것보다 대부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질문에 응답하는 방식에 있어서 1차성 정신병질성향 집단은 비교적 높은 자기확신을 통해 적극적으로 응답한 반면, 2차성 정신병질성향 집단은 스스로의 판단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고 소극적으로 응답했음을 추론해 볼 수 있다. 이는 주어진 상황 및 자극에 대한 두 정신병질성향 집단의 상이한 반응양식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겠다(Mealey, 1995; Porter, 1996).

넷째, 두 정신병질성향 집단은 통제집단보다 체면 가치를 더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타인지향성이라는 문화적 관점보다는(Choi, 2000) 사회적 자기에 대한 민감성이라는 병리적 관점에서의 해석이 더 적절할 것으로 여겨진다(Song & Park, 2009). 1, 2차성 정신병질의 구분자로서 다수의 선행연구들이 두 정신병질의 이질적인 자기에 속성에 주목해왔는데, 1차성 정신병질은 외현적 자기에와, 2차성 정신병질은 내현적 자기에와 관련된 것으로 수렴되고 있다(Skeem et al., 2003). 그러므로 체면 가치에 대한 두 정신병질의 높은 평가에 대해서는 내·외현적

자기애를 통한 각기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 즉, 1차성 정신병질성향 집단은 우월한 자기를 드러내 보이고자 하는 동기가 작용한 것이라면, 2차성 정신병질성향 집단은 취약한 자기를 은폐하고자 하는 동기가 작용한 결과로 추론해 볼 수 있겠다.

다섯째, 1, 2차성 정신병질 특성과 가치들 간의 상관분석 결과는 다크 트라이어드와 가치의 관계를 다룬 선행연구 결과에 보다 구체적인 설명을 더하고 있다. 즉, 다크 트라이어드의 정신병질 요인과 4개 상위가치 간의 관계를 다룬 Jonason 등(2015)의 연구에서는 정신병질 요인이 자기고양 상위가치와 정적상관을, 자기초월 및 보수 상위가치와는 부적상관을 보인 것으로 보고한 바 있다. 또한 정신병질 특성을 1차성과 2차성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본 연구에서도 두 정신병질 특성은 모두 자기고양 상위가치와 정적상관을, 자기초월 상위가치와는 부적 상관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보수 상위가치는 1차성 정신병질 특성과 부적상관을 보인 반면, 2차성 정신병질 특성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개인이나 사회가 경험하는 현상을 유지하는 것과 관련하여 2차성 정신병질 특성보다는 1차성 정신병질 특성의 저항이 더욱 심하다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겠다. 또한 다크 트라이어드와 취약한 다크 트라이어드 간의 구분을 제안한 Miller 등(2010)의 주장을 고려했을 때, 두 정신병질 특성 중 1차성 정신병질 특성만이 다크 트라이어드의 정신병질 요인과 정확히 일치한 결과를 보인 점은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이는 다크 트라이어드의 정신병질 요인이 1차성 정신병질 특성만을 반영하고 있다는 추론을 가능케 하는데 이와 관련한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Kajonius 등(2015)은 다크 트라이어드의 정신병질 요인과 전체 19개 가치 간의 관계를 탐색한 바 있다. 연구결과는 정신병질 요인과 자극추구·쾌락주의·성취·권력 가치가 정적상관을 보였으며, 안전·전통·동조·박애·보편주의 가치와는 부적상관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본 연구결과와 불일치한 내용들은 우리 사회의 문화적 특수성을 통해 이해될 필요가 있겠다(Choi & Lee, 2014; Han, Choi, Kim, Lee, & Kim, 2012; Na & Cha, 2010). 체면과 겸손 가치는 다크 트라이어드의 정신병질 요인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본 연구를 통해서는 두 정신병질 특성 모두와 유의한 상관이 확인되고 있다. 체면과 겸손은 우리 사회의 문화적 맥락에서 민감하게 작용하는 고유한 가치들인 바, 그 지나침과 결핍이 정신병질 특성과 관련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다크 트라이어드의 정신병질 요인과는 유의한 상관이 보고되었으나, 본 연구를 통해서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가치들이 있다. 즉, 1차성 정신병질 특성과는 안전·전통 가치가, 2차성 정신병질 특성과는 안전·전통·보편주의-자연·보편주의-관심·박애-신뢰성이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두 정신병질 특성 모두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안전 가치는 남북 분단 상황, 특히 남자의 경우는 군입대라는 사회적 특수성이 작용했을 가능성도 고려해 볼 수 있겠다(Choi & Lee, 2014). 전통 가치도 두 정신병질 특성 모두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전통 가치는 순위비교를 통해 세 집단 모두에서 최하위 순위를 확인해 볼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전통과 풍습에 대한 가치 인식의 저하로 인한 바닥효과가 작용했을 가능성을 추론해 볼 수 있겠다(Choi & Lee, 2014; Na &

Cha, 2010). 이밖에 보편주의-자연·보편주의 관심·박애-신뢰성 가치는 1차성 정신병질 특성과는 유의한 상관이 확인되었으나, 2차성 정신병질 특성과는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았다. 자기초월 상위가치에 대한 두 정신병질성향 집단 간의 차이를 고려해 볼 때, 이는 문화적 요소보다 두 정신병질 특성이 갖는 성격특성으로서의 차이가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여섯째, 1차성 정신병질성향 집단 및 2차성 정신병질성향 집단은 쾌락주의를 선호하고 겸손 가치를 경시하는 현재의 가치 풍조에 통제 집단보다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연구결과는 세 집단 모두 쾌락주의가 우선시 되고 겸손 가치가 퇴락한 공통된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두 정신병질성향 집단에서 보다 심화된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국내 대학생들의 가치관 변화를 다룬 선행연구들은 우리사회의 가치관이 자기주장을 강조하고 삶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고 보고해 왔는데(Choi & Lee, 2014; Hahn & Lee, 2003; Na & Cha, 2010), 이러한 결과는 우리사회가 경험하는 가치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통제집단에서 관찰되는 쾌락주의보다 가치우선성이 우세한 가치들(동조-대인적·박애-돌봄·보편주의-관심·박애-신뢰성·보편주의-관용), 겸손 가치보다 가치우선성이 저조한 가치들(권력-지배·권력-자원·자극추구)은 두 정신병질성향 집단의 가치우선성과는 다른 것이다. 이는 사회문화적 변동에 따른 가치의 다양성 및 변화 속에서 강조되고 우선시 되어야 할 가치가 무엇인가에 대해 사회학적으로 의미있는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의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정신병질과 가치의 관계를

다룬 탐색적 연구로서 다크 트라이어드의 정신병질 요인과 가치의 관계를 다룬 선행연구(Jonason et al., 2015; Kajonius, 2015)에 보다 진일보된 설명을 더하고 있다. 즉, 두 정신병질 특성과 가치와의 관계 및 두 정신병질성향 집단과 통제집단의 가치를 비교함으로써 1, 2차성 정신병질의 가치관이 서로 어떻게 다르며, 일반인들의 가치관과도 어떻게 다른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제시하고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정신병질을 단일한 장애로 다루지 않고 1차성 정신병질과 2차성 정신병질을 구분하여 다루고 있다. 이를 통해 두 정신병질에 대한 이해를 확장시키는 한편, 통제집단과의 비교를 통해 교육 및 교정, 임상장면에서 가르치고 강조되어야 할 가치의 방향이 무엇인가에 대해 제언하고 있다.

셋째, 정신병질이 1차성과 2차성으로 구분되는 이질적인 장애라는 주장이 제기된 이후 줄곧 두 정신병질의 구분자에 대한 연구자들의 관심이 있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1, 2차성 정신병질 간 가치의 차이를 밝히고 있는 바, 두 정신병질의 구분자로서 가치관의 활용가능성을 제안하고 있다.

본 연구가 갖는 제한점과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두 임상집단은 대학생 참여자 중 정신병질 성향자들로 선별·구성된 바, 연구 결과는 어디까지나 정신병질자들에 대한 추정치를 제공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연구 결과를 국내 성인 남녀 전체 및 정신병질자 전체로 일반화하는데 한계를 갖는다.

둘째, 본 연구는 4개 상위가치 및 전체 19개 가치에 대하여 두 정신병질성향 집단 및 통제집단을 비교하고 있다. 이중 1차성 정신병질성향 집단의 안전-개인, 2차성 정신병질성

향 집단의 권력-지배, 통제집단의 성취 가치가 정규분포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들 세 조건의 집단간 비교에 혼입 가능성이 잠재해 있다는 한계를 갖는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참여자들의 가치관을 측정하기 위하여 Schwartz가 제작한 PVQ-R을 이용하였다. 그러나 PVQ-R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 70여개 국가의 보편적 가치를 토대로 작성된 것으로 소위 보편적 가치만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만의 사회문화적 특성에 기반한 가치들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갖는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두 정신병질 간 가치관의 차이를 밝히고 있으나, 이를 교육 및 임상현장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보다 정교한 설명이 필요하다. 두 정신병질과 가치관의 관계 및 그 형성과정에 작용하는 내적 기제, 발달적 기제, 다양한 개인차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바람직한 속성을 갖는 가치관과 혐오적 성격 특성인 정신병질 간의 관계를 다룸으로써, 가치관을 단순히 '다름'의 차원에서만 조망하지 않고, 가치우선성과 편향을 기초로 정신병질이라는 바람직하지 않은 속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는 인간행동의 어두운 측면을 다루는데 소홀해 왔던 기존의 가치관 연구 흐름과는 다른 시도라 할 수 있다. 앞으로 가치우선성과 가치 편향이라는 구성개념을 통해 임상적 함의를 갖는 다양한 성격 및 행동에 관한 가치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References

- Bardi, A., Lee, J. A., & Goodwing, R. (2011). The dual route to value change: Individual processes and cultural moderators.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42*, 271-287.
- Bardi, A., Lee, J. A., Hofmann - Towfigh, N., & Soutar, G. (2009). The structure of intraindividual value chang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7*, 913-929.
- Bardi, A., & Schwartz, S. H. (2013). Values and behavior: Strength and structure of relation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9*, 1207-1220.
- Benish-Weisman, M. (2015). The interplay between values and aggression in adolescence: A longitudinal study. *Developmental Psychology, 51*, 677-687.
- Bilsky, W. (1998). *Motives and values: Towards a taxonomic integration of two psychological constructs*. Paper presented at the International Workshop on Values, Maale Hakhamisha, Israel.
- Blackburn, R. (1988). On moral judgments and personality disorders: The myth of psychopathic personality revisited.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53*, 505-512.
- Blackburn, R. (1996). Psychopathy and personality disorder: Implications of interpersonal theory. *Issues in Criminological and Legal Psychology, 24*, 18-23.
- Blackburn, R. (1998). Psychopathy and the contribution of personality to violence. In T. Millon, E. Simonsen, M. Birket - Smith, & R. D. Davis (Eds.), *Psychopathy: Antisocial, criminal, and violent behavior* (pp. 50-67). New

- York: Guilford.
- Choi, J. W., & Lee, Y. H. (2014). Validation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Portrait Values Questionnaire-Revised(PVQ-R).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General*, 33, 533-590.
- Choi, S. C. (2000). The theoretical background and practice of Korean cultural psychology: Twenty years of experiential learning through doing cultural psychology in Korea. *Korean Journal of Psychological and Social Issues*, 6, 25-40.
- Cieciuch, J., Schwartz, S. H., & Vecchione, M. (2013). Applying the refined values theory to past data: What can researchers gain?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44, 1215-1234.
- Cleckley, H. (1941). *The mask of sanity*. St. Louis: Mosby.
- Cleckley, H. (1982). *The mask of sanity* (5th ed.). St. Louis: Mosby.
- Cooke, D. J., & Michie, C. (2001). Refining the construct of psychopathy: Towards a hierarchical model. *Psychological Assessment*, 13, 171-188.
- Falkenbach, D., Poythress, N. G., & Creevy, C. (2008). The exploration of subclinical psychopathic subtypes and the relationship with types of aggression.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4, 821-832.
- Gacono, C., Nieberding, R., Owen, A., Rubel, J., & Bodholdt, R. (1997). Treating conduct disorder, antisocial, and psychopathic personalities. In J. Ashford, & B. Sales (Eds.), *Treating adult and juvenile offenders with special needs* (pp. 99-129).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Gunn, J. (1998). Psychopathy: An elusive concept with moral overtones. In T. Millon, E. Simonsen, M. Birket-Smith, & R. D. Davis (Eds.), *Psychopathy: Antisocial, criminal, and violent behavior*. New York: Guilford.
- Gustafson, S. B., & Ritzr, D. R. (1995). The dark side of normal: A psychopathy-linked pattern called aberrant self-promotion. *European Journal of Personality*, 9, 147-183.
- Haapasalo, J., & Pulkkinen, L. (1992). The Psychopathy Checklist and non-violent offender groups. *Criminal Behaviour and Mental Health*, 2, 315-328.
- Hahn, D. W., & Lee, K. S. (2003). Changes in ways to live of the Korean during the last thirty years.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17, 49-67.
- Han, M., Choi, I. C., Kim, B. J., Lee, H. J., & Kim, J. H. (2012). Korean mind map I: Emotions, thinking style, and values of Korean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General*, 31, 435-464.
- Hare, R. D. (1993). *Without conscience: The disturbing world of the psychopaths among us*. New York: Pocket Books.
- Hart, S. D., & Hare, R. D. (1997). Psychopathy: Assessment and association with criminal conduct. In D. M. Stoff, J. Breiling, & J. D. Maser (Eds.), *Handbook of antisocial behavior* (pp. 22-35). New York: Wiley.
- Hervé, H., Ling, J., & Hare, R. D. (2000). *Criminal psychopathy and its subtypes*. Paper presented at the biennial conference of the American Psychology-Law Society, New Orleans, LA.

- Hicks, B. M., Markon, K. E., Patrick, C. J., Krueger, R. F., & Newman, J. P. (2004). Identifying psychopathy subtypes on the basis of personality structure. *Psychological Assessment, 16*, 276-288.
- Hofstede, G. (1980). *Culture's consequences: International differences in work-related values*. Beverley Hills, CA: Sage.
- Hovarth, A., & Symonds, B. (1991). The role of the therapeutic alliance in psychotherap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38*, 139-149.
- Jacobowitz, S., & Egan, V. (2006). The dark triad and normal personality trait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0*, 331-339.
- Jonason, P. K., Strosser, G. L., Kroll, C. H., Duineveld, J. J., & Baruffi, S. A. (2015). Valuing myself over other: The dark triad traits and moral and social value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81*, 102-106.
- Kajonius, P. J., Persson, B. N., & Jonason, P. K. (2015). Hedonism, achievement, and power: Universal values that characterize the dark triad.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77*, 173-178.
- Karpman, B. (1941). On the need for separating psychopathy into two distinct clinical types: Symptomatic and idiopathic. *Journal of Criminology and Psychopathology, 3*, 112-137.
- Karpman, B. (1946). Psychopathy in the scheme of human typology.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103*, 276-288.
- Karpman, B. (1948). Conscience in the psychopath: Another version.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18*, 455-491.
- Kernberg, O. (1998). The psychotherapeutic management of psychopathic, narcissistic, and paranoid transferences. In T. Millon, E. Simonsen, M. Birket-Smith, & R. D. Davis (Eds.), *Psychopathy: Antisocial, criminal, and violent behavior* (pp. 372-382). New York: Guilford.
- Kim, D. M., & Park, H. J. (2005). Subtyping of psychopathy-like adolescents: Primary psychopaths and secondary psychopaths. *The Korea Journal of Youth Counseling, 13*, 111-123.
- Kim, H. S., Hong, H. G., Choi, H. T., Kang, D. J., & Seo, J. S. (2010). Study on the dark triad of personality traits: Narcissism, machiavellianism, primary psychopathy & secondary psychopathy. *Korean Journal of Forensic Science, 11*, 19-24.
- Kim, Y. S., & Choi, H. N. (2009). Extending the validity of the Schwartz's universal value theory: The Case of Korean university students.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23*, 1-16.
- Kluckhohn, C. (1951). Values and value-orientation in the theory of action: An exploration in definition and classification. In T. Parsons & E. Shils (Eds.), *Toward a general theory of action*.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Kluckhohn, F., & Strodtbeck, F. (1961). *Variations in value orientations*. Evanston, IL: Row Peterson.
- Knafo, A. (2003). Authoritarians, the next generation: Values and bullying among adolescent children of authoritarian fathers. *Analyses of Social Issues and Public Policy, 3*, 199-204.
- Kosson, D., & Newman, J. (1995). An evaluation

- of Mealey's hypotheses based on psychopathy checklist identified groups. *Behavioral and Brain Sciences*, 18, 562-563.
- Kowalski, R. M. (2001). *Behaving badly: Aversive behaviors i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Lee, S. J., & Gong, J. K. (2007). Characteristic analysis of domestic homicidal behavior based on psychopathy. *The Korean Association of Police Science Review*, 13, 1-23.
- Lee, Z., & Salekin, R. T. (2010). Psychopathy in a noninstitutional sample: Difference in primary and secondary subtypes. *Personality Disorders: Theory, Research, and Treatment*, 1, 153-169.
- Levenson, M. R., Kiehl, K. A., & Fitzpatrick, C. M. (1995). Assessing psychopathic attributes in a noninstitutionalized population. *Journal of Personality & Social Psychology*, 68, 151-158.
- McClelland, D. C. (1985). How motives, skills and values determine what people do. *American Psychologist*, 40, 812-825.
- McHoskey, J. W. (1995). Narcissism and machiavellianism. *Psychological Reports*, 77, 755-759.
- McHoskey, J. W., Worzel, W., & Szyarto, C. (1998). Machiavellianism and psychopathy. *Journal of Personality & Social Psychology*, 74, 192-210.
- Mealy, L. (1995). Primary sociopathy(psychopathy) is a type, secondary is not. *Behavioral and Brain Sciences*, 19, 579-599.
- Miller, J. D., Dir, A. D., Gentile, B., Wilson, L., Pryor, L. R., & Campbell, W. K. (2010). Searching for a vulnerable dark triad: Comparing factor 2 psychopathy, vulnerable narcissism, and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Journal of Personality*, 78, 1529-1564.
- Na, E. Y., & Cha, Y. R. (2010). Trends of value changes in Korea: Based on 1979, 1998, and 2010 survey data.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24, 63-93.
- Park, J. S., Hyun, M. H., & You, J. M. (2010). A comparison of the characteristics of juvenile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feature and juvenile psychopathic behavior featur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9, 945-967.
- Parsons, T., & Shils, E. A. (1951). *Toward a general theory of action*.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Paulhus, D. L., & Williams, K. M. (2002). The dark triad of personality: Narcissism, machiavellianism, and psychopathy.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36, 556-563.
- Porter, S. (1996). Without conscience or without active conscience? The etiology of psychopathy revisited.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1, 179-189.
- Roccas, S., Sagive, L., Schwartz, S. H., & Knafo, A. (2002). The Big Five personality factors and personal value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8, 789-801.
- Rokeach, M. (1973). *The nature of human values*. New York: Free Press.
- Ross, S. R., Moltó, J., R., Segarra, P., Pastor, M. C., & Montañés, S. (2007). Gray's model and psychopathy: BIS but not BAS differentiates primary from secondary psychopathy in non-institutionalized young adult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3, 1622-1655.
- Schwartz, S. H. (1992). Universals in the content

- and structure of values: Theoretical advances and empirical tests in 20 countries. In M. P. Zanna (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New York: Academic Press.
- Schwartz, S. H. (1994). Are there universal aspects in the structure and contents of human values? *Journal of Social Issues, 50*, 19-45.
- Schwartz, S. H., & Bilsky, W. (1987). Toward a universal psychological structure of human valu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3*, 550-562.
- Schwartz, S. H., & Bilsky, W. (1990). Toward a theory of the universal content and structure of values: Extensions and cross-cultural replic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 878-891.
- Schwartz, S. H., Cieciuch, J., Vecchione, M., Davidov, E., Fischer, R., Beierlein, C., ... Konty, M. (2012). Refining the theory of basic individual valu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03*, 663-688.
- Skeem, J., Johansson, P., Andershed, H., Kerr, M., & Louden, J. (2007). Two subtypes of psychopathic violent offenders that parallel primary and secondary variant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16*, 395-409.
- Skeem, J., Poythress, N., Edens, J., Lilienfeld, S., & Cale, E. (2003). Psychopathic personality or personalities? Exploring potential variants of psychopathy and their implications for risk assessment.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8*, 513-546.
- Song, J. Y., & Park, K. H. (2009). The sociocultural variables influencing social anxiety with concern for offending others: Focusing on che-myeon, nun-chi, and self-construal.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14*, 329-343.
- Sortheix, F. M., Olakivi, A., & Halkama, K. (2013). Values, life events, and health: A study in a Finnish rural community. *Journal of Community & Applied Social Psychology, 23*, 331-346.
- Suedfeld, P., & Landon, P. (1978). Approaches to treatment. In R. Hare & D. Schalling (Eds.), *Psychopathic behaviour: Approaches to research*. London: Wiley.
- Wong, S. (2000). Psychopathic offenders. In S. Hodgins & R. Muller-Isberner (Eds.), *Violence, crime and mentally disordered offenders: Concepts and methods for effective treatment*. London: Wiley.
- Wong, S., & Hare, R. (2003). *Program guidelines for the institutional treatment of violent psychopathic offenders*. Toronto: Multi-Health Systems.
- Youn, H., & Lee, Y. H. (2016). Primary and secondary psychopathic traits and unethical decision making: Mediating effect of moral emotion and moral disengagement.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5*, 453-472.

Received August 26, 2015

Revised February 19, 2016

Accepted March 13, 2016

1, 2차성 정신병질 성향자들의 가치관에 관한 연구: Schwartz의 가치이론을 중심으로

윤 황 이 영 호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정신병질이 1차성과 2차성으로 구분되는 이질적인 장애임을 전제로 이들의 행동에 작용하는 가치관이 서로 어떻게 다른가를 탐색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를 위해 자기보고식 정신병질질문지(LSRP)를 이용하여 1차성 정신병질성향 집단, 2차성 정신병질성향 집단, 통제집단을 구성한 후, 가치묘사질문지(PVQ-R)를 통해 측정된 세 집단의 가치관을 비교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두 정신병질성향 집단은 통제집단보다 개인적 초점의 가치를 우선시하고 사회적 초점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경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자기고양 및 자기초월 상위가치에서 더욱 현저하였다. 또한 변화에 대한 개방성과 보수 상위가치에 속한 가치들 중 쾌락주의, 체면 가치는 두 정신병질성향 집단이 통제집단보다 더 중요시 하였으며 겸손가치는 통제집단이 두 정신병질성향 집단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정신병질성향 집단 간의 비교에서는 1차성 정신병질성향 집단이 자기고양 상위가치 및 성취, 권력-지배, 권력-자원 가치를 2차성 정신병질성향 집단보다 더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차성 정신병질성향 집단은 자기초월 상위가치 및 보편주의-관심 가치를 1차성 정신병질성향 집단보다 더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어: 1차성 정신병질, 2차성 정신병질, Schwartz의 가치이론, 가치관, PVQ-R